

토종닭 산란형질 향상 기술 개발



토종닭은 우리 국민에게 옛날 시골에서 장모님이 잡아주 시던 씨암탉의 향수와 푸근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다는 '신토불이'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순수한 우리의 자원으로 수입종을 대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산란계나 육계를 막론하고 국내에서 소요되는 수량의 종계를 매년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FTA 등 세계시장 개방추세에 대비하여 토종닭을 이용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으로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토종닭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토종닭 시험연구사업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1980년대 초 멸실되어 가는 토종닭을 수집하여 품종복원 사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5품종 12계통의 품종복원 및 순수화 작업을 완료하여 국산 순계 토종닭의 다계통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과학원 토종닭은 우리 입맛에 맞는 뛰어난 육질 특성과 향미 때문에 육용 토종닭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다양하고 현명해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품종 개발을 위하여 산란전용 토종닭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2009년 1월 착수되었다.

산란전용 토종닭 개발 연구는 토종닭의 산란형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순계집단을 활용한 교배조



박 미 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합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종계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년 개체별 능력이 기록되어지는 토종닭 순계 집단에서 산란능력이 우수한 5품종을 선발하여 이들의 교배조합을 통한 4그룹의 종계집단을 생산해 내고 이들 중 우수한 품종을 1~2종 선발할 계획이다.

토종닭 알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신선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 산란계 알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산란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산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종닭과 산란능력이 뛰어난 종과의 교배를 통한 실용계 생산으로 산란능력을 높이고 알을 품으려고 하는 취소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산란전용 토종닭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즘 집 앞마당에서 소규모로 키울 수 있는 애완형태의 닭 사육이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계란을 제공해주고 병아리가 부화되고 닭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도시민들의 귀농이 증가추세에 있고, 컴퓨터 게임과 과도한 학업에 치여 자연환경이나 생명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단위로 사육하는 토종닭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고, 매일 아침 맛있는 계란을 생산해 주며 가끔씩 귀한 손님이 오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다용도의 목적으로 사육될



수 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산란전용 토종닭은 이러한 취미형 닭 사육은 물론 친환경 양계 산업 및 농촌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토종닭 개발의 시초로써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 소비자와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닭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산란용 토종닭 개발 연구는 몸에 좋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귀농을 통한 부업형 소규모 양계산업 및 취미·관상용 닭 기르기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소규모로 집 앞 마당에서 토종닭을 기르면 보기에 좋고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알을 먹음으로써 건강 증진과 더불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대규모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토종닭 사육을 통하여 지역별 계란 브랜드를 특화시켜 산업적 경제적 가치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양계**